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0월 27일(화) 제 3424호

전주시, 국제 아이스하키대회 준비 박차

11월 5~9일 전주서 4개국 대항전
조지훈 시장, 현장 집중 점검 나서
선수단 편의·관람 안전·동선 중점
조 시장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조지훈 전주시장이 전주에서 펼쳐질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과 대회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지훈 시장은 26일 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찾아 시설 개선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과 행사장 배치 및 관람객 동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에서 열리는 IIHF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을 앞두고 경기장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IIHF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주최하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주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 참가하는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국가대항전이다.

이날 조 시장은 경기장 출입구,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위치한 선수대기실 및 운영본부 등을 차례로 살폈다.

이어 빙상경기장 내부의 선수단 벤치와 페널티박스, 본부석 등 경기 필수 시설물 설치 과정을 확인하고,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의 이동 동선 및 관람석 운영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조 시장은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추진 중인 선수대기실과 샤워장 등 시설 개선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국제 대회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 환경 조성과 선수단 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시민들에게 국제 수준의 아이스하키 경기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장 시설과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선수단 편의와 관람객 안전, 원활한 대회 운영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시설 개선과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IIHF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전주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민성장펀드 1호 로봇 기업
완주군에 1000억 투자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로봇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 투자협약에 이원택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대현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원익로보틱스, 완주에 1천억 투자 피지컬AI 로봇 생산거점 조성

2029년까지 1만4019㎡ 부지에 조성
테크노2산단 제조AX거점 구축
로봇핸드·자율이동조작로봇 생산
도 피지컬AI 연계 로봇생태계 확대

전북도가 26일 로봇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 완주군과 피지컬 AI 기반 로봇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대현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원익로보틱스는 2029년까지 약 1,000억 원을 들여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1만 4,019㎡ 부지에 제조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조성한다.

2029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거점에는 로봇핸드와 자율이동조작로봇, 산업용 휴머노이드 생산설비를 비롯해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피지컬 AI 데이터 인프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다져온 제조업 기반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익그룹 계열사인 원익로보틱스는 2004년 ㈜심랩으로 출발해 로봇핸드와 자율이동조작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 왔다. 로봇핸드는 엔비디아와 MIT, 스탠퍼드 등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 로봇 연구 및 AI 학습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으며, 국내외 180여 곳의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에 500대 넘게 공급됐다.

2012년 지능형로봇 기술부문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2023·2024년 한국로봇산업협회 주관 로보월드 어워드 '올해의 우수제품'에 선정됐고, 2026년에는 나노코리아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4년 제61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을 받은 데 이어 2025년에는 로봇핸드 수출액이 25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총 3,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받아 로봇 분야 '국민성장펀드 1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대현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는 "전북의 자동차, 기계 등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실증 및 공동연구 협력이 가능한 점이 투자결정 요인이었다"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 산업과 연계해 로봇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도지사는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익로보틱스가 완주를 양산 거점으로 선택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완주 제조AX거점이 전북 지역 제조기업의 피지컬 AI 전환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인허가와 보조금 지원 등을 완주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반등 1주만에 35.3%로 다시 하락

부정평가 62.3%…긍정과 격차 확대
국힘 1.7%p ↑ 민주당에 6.6%p 우세
양당 격차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약세를 보여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5.3%(매우 잘함 22.7%·잘하는 편 12.6%)로 나왔다. 지난주에는 2.1%포인트 반등했었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2.3%(매우 잘못함 51.6%·잘못하는 편 10.7%)였으며, '잘 모름'은 2.4%였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이유로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더해, 北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과 대통령의 SNS 발언 및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보층과 수도권 중심의 지지 이탈로 한 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4.6%P↓), 인천·경기(4.4%P↓), 전남광주·전북(2.7%P↓), 여성(3.4%P↓), 70대 이상(7.0%P↓), 20대(3.5%P↓), 60대(3.4%P↓), 40대(2.9%P↓), 진보층(5.6%P↓), 무직/은퇴/기타(9.0%P↓), 농림어업(3.8%P↓), 가정주부(2.4%P↓), 사무/관리/전문직(2.0%P↓)에서 각각 하락했다. 이와함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6%(1.7%P↑), 더불어민주당 36.0%(0.2%P↓), 조국혁신당 6.7%(0.2%P↓), 개혁신당 2.6%(0.8%P↑), 진보당 0.8%(0.3%P↓), 기타 정당 2.4%(0.2%P↑), 무당층 8.8%(2.3%P↓)로 나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금)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총 31,0413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집계에서 정당 지지도는 이같이 나왔다.

국민의힘 상승과 더불어민주당 소폭 하락으로 양당 간 격차는 6.6%P로 확대되면서 10주 만에 오차범위(±3.1%p) 밖으로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주 상승세가 꺾이며 0.2%포인트 하락한 6.7%,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순이었으며,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2.3%포인트 줄어든 8.8%였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8%포인트(45.7%→49.5%), 전남광주·전북에서 3.4%포인트(16.3%→19.7%), 인천·경기에서 3.3%포인트(41.4%→44.7%) 올랐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 4.1%포인트(39.5%→35.4%), 부산·울산·경남에서 3.9%포인트(32.0%→28.1%)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주 크게 늘었던 무당층이 9.8%포인트(21.1%→11.3%)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된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이원택 지사 "민생·새만금·창업도시 현안 속도전"

간부회의서 민생 현안 중점 다뤄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개편
창업도시 공모 전북 특화 대응 주문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택 수요 집중 발굴을 통한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강조하며, "도비 지원 확대와 통일된 업무 기준 마련으로 속도를 내고, 미동의 단지 공동 대응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중복 품목 제외, 신규 품목 발굴 등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계통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심의에 발맞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오는 28일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이어질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및 광역 기반시설·용도별 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도정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되는 대내외 소통 체계도 논의됐다. 이 지사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실·국·원장은 물론 소관 출자·출연기관장이 주요 정책을 상임위에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다각적인 채널로 빠짐없이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신뢰를 한층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언론과의 상시 소통과 적극적인 현안 대응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설명 부족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가 일상적인 소통을 챙겨달라"면서 "비판 보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책임 있게 대응하고, 브리핑을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닌 질문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조직 내부를 향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직급과 연차를 뛰어넘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부당한 관행 대신 동료를 배려하는 문화를 간부부터 앞장서 달라"며, 익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문화 쇄신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추가 공모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피지컬 AI와 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특화 강점을 살려 공모 요건을 신속히 갖추고, 산·학·연과 연계한 빈틈없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남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사·문화 탐방

공공형 계절근로자 50여 명 참여
광한루원 일대서 전통문화 체험
군산 근대역사 문화탐방도 예정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26일 남원시 일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도·시·군 및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함께하는 전북 역사·문화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과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남원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계절근로자들은 손잡이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맞춤형 부채를 기념품으로 전달받아 큰 호응을 보였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을 둘러보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북의 문화와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계절근로자는 "내 이름이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부채를 받아 정말 감동적이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고, 내년에도 꼭 다시 전북에 돌아와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농협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탐방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철길마을을 일원에서 2회차 근대역사 문화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언어와 기후가 다른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준 계절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올 한 해 전북 농가들이 큰 힘을 얻고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함께 일한 영농 기간은 마무리되어 가지만 전북과의 따뜻하고 소중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태양광 투자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정읍·고창 토방청담 재개
수로 보수·변전소 확보 등 수렴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로 잠시 중단했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고창군 부안면 주민 약 50여명과 함께 부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궂은 날씨에 토방청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와 민선 9기 출범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 이 정부 들어서 쌀값, 소값 등이 회복 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민생 6법을 개정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면서 "새만금 현대차 9조원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북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고창군 및 부안면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올 여름 폭우로 인해 무너진 수로 보수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변전소 조기 확보 △미등록 건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 등록 정비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거 등 유휴부지 점용허가 △갈곡천 후포갑문의 추가 정비 △하천구역 활용 농업 활동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대동마을~용현마을 ㄱ자 구간 도로의 우회도로 개설 △100세 어르신 선물 지급기준 개선과 뿌리고창인 기준 개선(불가피하게 고창을 일시적으로 떠났다 돌아온 고창인 구제) △ 종중, 임야 등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대상 포함 △담배 재배 농가를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봉암천 배수개선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광장 포장 등 다양한 건의를 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에 "수로 보수 요청은 현장방문 후 개선점을 찾아볼 것,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변전소 확대설치에 대해선 한국전력 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변전소 설치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양광 투자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미등록 건물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물의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에 대해선 고창군청 등 행정기관에 유휴부지 문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갈곡천 후포갑문 정비사업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구매한 니코틴 원액'을 들어보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의원실>

안호영 "고농도 니코틴 관리방안 마련해야"

농도 기준 삭제 관리 공백 우려
기후부에 관리 개선 대책 촉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별도 관리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어, 화학물질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보좌진이 실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구매한 5% 니코틴 액상 두 병을 제시하면서 "이 30mL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25배가 들어 있다(성인 치사량으로 알려진 니코틴 60mg은 5% 액상 1.2mL에 해당)"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보좌진이 구매한 판매점에서는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도 판매하고 있었다"며 "매장 안내문에는 원액이 '살인 또는 자살'에 쓰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확인한 니코틴 중독 사망은 71건에 이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2015년 환경부는 소비자가 고농도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니코틴 함량 2%를 넘는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용으로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시 환경부는 2% 초과 혼합물의 담배용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고시 개정으로 이 2% 조건이 삭제됐다.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이유였다.

이와함께 담배사업법을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담배 유해성 관리를 맡은 보건복지부 모두 니코틴 농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입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겹칠 기준이 없는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기준을 없앤 셈"이라며 "담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니코틴이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은 기후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이고, 올해 5월까지 관리해 왔다"며 "담배든 아니든 니코틴 같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농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부처 간 책임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 국민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후부가 해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6-메틸니코틴처럼 니코틴을 대신해 흡입하는 신종 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흡입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관리할 기준을 기후부가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며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과 흡입용 화학물질 선제 관리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멸종위기 전주물꼬리풀 보전·복원 '맞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협약 기능성 소재화 연구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6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멸종위기 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의 연구 성과 활용 및 생태복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은 26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 이하 협의회)와 멸종위기 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의 연구 성과 활용 및 생태복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가 협력해 전주물꼬리풀의 연구·복원·시민 홍보를 연계하는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 현황과 사업화 방향 등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회는 복원·식재 활동과 시민 홍보를 담당하는 등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오는 2027년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일원에서 공동 식재 행사를 추진하고,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등 지역행사와 연계한 시민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물꼬리풀은 1912년 전주 지역 습지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로, '전주'라는 지명을 이름에 가진 유일한 식물이다.

매년 8~10월 연분홍색 또는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습지식물로,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돼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한 지역의 소중한 농생명 자원이다.

이에 연구원은 전주물꼬리풀 세포주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포주 추출물의 활성과 항염 효과를 확인 중이다.

또, 지역 고유 자원의 과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소재화·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상남 원장은 "전주물꼬리풀은 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함께 지닌 소중한 농생명 자원"이라며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전·복원에 동참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로 지역 농생명 자원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물꼬리풀은 현재 오송제 습지를 비롯해 기린공원 맹꽁이숲,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등에서 복원과 증식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아동 '성장맞춤 책가방' 지원

취약계층 아동 16명에 전달 양육 부담 완화 학교생활 지원



전주시가 경제적 사정으로 책가방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성장 단계에 맞춰 책가방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성장맞춤 책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입학 시기 지원받은 책가방을 지속 사용 중이거나, 노후·훼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새로 구입하기 어려운 아동 등 총 16명이다.

선정된 아동들은 담당 사례관리사가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최종 선정했으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성장단계와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책가방을 구입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성장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복지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안정적인 학습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아동들이 새 책가방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동의 성장에 발맞추어 필요한 지원 또한 제때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맛과 멋 버무린 전주김장문화축제 열린다!

'제8회 전주김장문화축제' 개최 26일 정오부터 전주푸드마켓서 온라인 사전예약 접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맛의 고장 전주'에서 올해도 지역 농산물로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그 온기를 이웃과 나누는 김장문화축제가 열린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전주푸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P12주차장)에서 '제8회 맛과 멋을 버무린 2026 전주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전주김장문화축제는 11월 28일 펼쳐지는 개막식을 비롯해 사랑의 김장나눔(기관·단체)과 김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행사장에서는 김장 관련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문화공연과 김장문화 홍보부스, 먹거리부스 등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기존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현장 수령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김장세트를 받으러 오면서 축제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장 체험과 김장 세트 현장 수령 가격은 10㎏당 6만9000원으로 동일하다. 김장 세트는 절임배추 7㎏과 김칫소 3㎏으로 구성된다. 배추, 고춧가루 등 주요 재료는 전주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품목은 도내 로컬푸드로 채워진다.

김장세트 구매자에게는 축제 기간 중 행사장 내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쿠폰도 증정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마켓(www.jjfoodmarket.co.kr)에서 김장축제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기관·단체는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약 유형은 △가족이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고유의 김장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인 '일반 시민 현장 김장체험' △기관과 단체가 축제장에서 직접 김장을 담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전하는 기부행사인 '기관·단체 전용 김장나눔' △사전 예약한 절임배추와 김칫소를 축제장에서 받아 집에서 편하게 김장하는 상품인 '김장세트 현장 수령'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로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김장의 즐거움을 느끼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속에서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창업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청년 창업 금똑 상담소 운영

전주시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오는 30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 창업 상담 프로그램인 '청년 창업 금똑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똑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청년이음전주에서 진행되며, 매월 경영전략과 회계·세무, 마케팅·디자인 분야 상담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10월 상담에서는 경영전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청년들의 창업 고민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네이버 폼(naver.me/FwGiysPK) 또는 전화(063-281-8761)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의 호응을 얻으며 창업 상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6만여 명 함께 즐긴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성료

세계적 거장 지미 리아오 및 전주 시민 작가 작품 한자리에 그림책 산업 저변 확대



'책의 도시 전주의 가을'을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 국내외 그림책 거장들의 원화로 가득 채운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6만여 명 방문객의 끊이지 않는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일원에서 '기억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시민과 창작자,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도서전은 특히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 행사의 규모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단순한 그림책 원화 전시를 넘어 국내외 작가·출판사·전문가가 교류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논의가 이뤄지는 '글로벌 그림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대만 그림책의 선구자인 지미 리아오(Jimmy Liao) 작가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의 원화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김동성 작가의 △꽃에 미친 김군 △엄마 마중 △그 오월의 딸기 △고향의 봄 원화 및 아트 프린트가 공개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류쉬궁, 린샤오베이, 우루이저, 잔디어 등 대만 유수 작가진의 수준 높은 작품이 함께 소개됐으며, '그림책 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지역 그림책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품 해설과 그림책 읽어주기를 진행해 시민들의 작품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 창작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 그림책 작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시민 작가들의 원화와 더미북 전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민이 직접 창작 주체로 참여해 결실을 맺은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큰 공감과 격려를 받으며 전주만의 독자적인 시민 출판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디픽투스 플랫폼이 엄선한 세계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2026 dPICTUS 100 Outstanding Picturebooks'와 전주와 대만의 음식, 식탁을 소재로한 드로잉 체험 전시 '맛있는 전주, 맛있는 대만' 등 이색적인 큐레이션 전시도 눈길을 사로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펼쳐진 본행사에서는 지미 리아오와 김동성 작가가 참여한 국제 콘퍼런스와 강연, 샤오위샨·잔디어 작가의 워크숍, 이수지 작가가 모더레이터로 나선 우루이저와 박현민 작가의 대담, 린샤오베이·류쉬궁 작가의 강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렸다. 또, 국내 그림책 출판사들이 준비한 강연과 체험, 공연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또, 출판산업 활성화와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구체적으로 △그림책 작가 지망생의 더미북을 김동성 작가가 1:1로 지도한 '포트폴리오 리뷰' △국내외 출판 관계자가 세계 시장 동향과 저작권 수출입 방안을 논의한 '출판교류 세미나' △국내외 그림책 출판사가 참여해 그림책과 굿즈를 판매하고 직접 교류한 '북마켓' 등을 통해 그림책 산업의 저변을 다진 것이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노인학대·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대상

전주시는 26일 시청 별관 강당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장과 종사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늘어나는 노인학대와 금융사기로부터 취약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와 일상생활을 살피는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특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양정인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학대의 유형과 예방·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신효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금융사기의 주요 수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펼쳤다.

특히 이날 교육은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살피는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노인학대·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취약노인의 인권 보호와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르신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돌봄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와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노인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홀몸 노인 가구에 17번째 드림하우스 선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우정회집수리봉사단 봉사활동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완산구 대성동에 거주하는 독거 가구를 대상으로 전주 우정회 집수리봉사단(집수리 추진단장 김용안)과 함께 '드림하우스 제17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동서학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주택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재래식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현관 앞에 별도의 보호 공간 없이 설치된 세탁기는 겨울철 동파가 잦아 사용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우정회 집수리봉사단 회원과 가족 등 30여 명은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고, 각자의 기술과 재능을 보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개선 △천장 보수 △세탁실 문 설치 △대문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점심에는 동네 주민을 초청해 국수와 새참 50인분을 함께 나누는 '집수리 봉사 동네잔치'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집수리를 위해 모인 봉사자와 이웃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방 중기 취업'

임금·근무환경이 결정 핵심… 기업 규모보다 실질적 근로조건 중시

청년 절반 이상이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만 충족된다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임금·주거·교통 등 실질적인 근로·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층이 기업 규모보다 임금과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임금 수준이 6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 51.9%, 고용안정성 50.9% 순이었다. 기업 규모보다 임금과 근무환경, 성장 가능성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중시한다는 응답도 56.5%에 달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52.3%로 가장 많았고, 낮은 임금 49.8%,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36.4%, 고용안정성 우려 36.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계속근무 의향은 46.7%에 그쳤다. 과거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 191명 가운데 58.7%는 총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주요 퇴사 사유 역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등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지방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55.3%는 임금과 복지, 직무 등 조건이 맞으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취업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는 주거 지원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임금 47.5%, 교통·통근 지원 4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지인과 멀어지는 부담 61.3%, 교통·접근성 문제 44.4% 등이 꼽혔다.

이는 전북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주·완주와 군산·익산·김제 등 주요 산업지역의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채용 지원과 함께 임금 격차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산업단지 통근 여건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우선과제로도 재직 청년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이 62.0%로 가장 높았다. 신규채용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은 44.1%, 직무교육·현장훈련 비용 지원은 41.6%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돼 전북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 의향이나 근로조건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북의 청년 유출 원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

현장 대응력 강화

부안군은 겨울철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 일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차단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주요 철새 도래지인 계화 조류지 등 철새 출몰지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등을 투입해 집중 소독을 전개하고 있다.

계화 조류지 일대는 매년 수많은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대표적인 도래지로 야생조류 분변 등을 통한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특별관리 지역이다.

군은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 대량 살포가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비롯해 방역 차량과 방역용 드론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했다.

소독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하천변과 수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근 주요 도로와 농가 진입로는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매일 꼼꼼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계화 조류지 주변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설정하고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낚시객과 일반 차량의 출입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철새를 통한 AI 유입 위험이 고조되는 만큼 계화 조류지를 비롯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매일 자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농협, 계절근로자와 따뜻한 동행

역사·문화 탐방 통해 전북의 멋과 정 선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이원택)와 함께 26일 남원문화원에서 필리핀 국적 공공형 계절근로자 40여명과 관계자 및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북 역사·문화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계절근로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전북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한국과 전북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향후 재입국과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 18개소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이 근로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진 영상을 보면서 기념품 전달과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품으로는 계절근로자에게 본인의 한글 이름이 각인된 한국의 전통미를 담은 태극 문양 부채가 전달됐고 성실한 근로를 통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행사 이후에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하주 발효 팜스테이마을 등 지역 역사·문화 체험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문화 매력을 직접 경험했으며 농업현장에서 함께한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신뢰를 쌓는 교류의 장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성훈 본부장은"계절근로자들은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돼준 소중한 동반자"라며"이번 행사가 전북의 문화와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전북에서의 좋은 경험이 차후에도 재입국과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라오스 국적 공공형 계절근로자들과 함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철길마을, 깐치멀 팜스테이마을 등 역사·문화 체험 현장을 방문해 또 다른 한국의 소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주상의, 전북 노사화합 가요제 성황

"상생과 협력 굳건히"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주최한 '제3회 전북 노사화합 가요제'가 도내 기업 임직원과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하영춘 JTV 사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 임직원과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북 노사화합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 실력과 숨겨둔 끼를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행사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경연 결과 대상은 전주대학교 차지은 씨가 차지했다. 금상은 전북동화중학교 정숙미 씨, 은상은 ㈜하랑정보 박지원 씨, 동상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천세진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인기상은 ㈜피치앤글로비스 이동진 씨가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김원준을 비롯해 노이즈, 영턱스클럽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가요제가 기업과 근로자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갈 때 기업은 성장하고 지역경제 또한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요제가 노사 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 성료·10개 팀 선발

최고 요리는 '꿀페스티복과 꿀퍼레이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6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24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 본선 참가 10팀은 8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honeydaycook2026.co.kr)에 참가 신청한 총 23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본선 심사는 성심당 안종섭 이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양봉산물 특성 반영, 창의성, 조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이 정해졌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아까시들' 팀이 만든 '꿀페스티복과 꿀퍼레이드'가 받았다.

이 팀은 크레이프를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감귤꽃꿀과 귤 콩포트(설탕 조림), 로열젤리, 아까시꿀을 활용한 크림을 담고, 수벌번데기와 잣으로 만든 크루스티앙, 화분을 더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양봉산물 요리를 선사했다.

심사 위원들은 "'다양한 꿀의 맛과 향을 살린 카페 음료 및 간편 후식'이라는 경연대회 주제를 잘 표현했으며, 다양한 양봉산물을 조화롭게 구성한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최우수상에는 야생화꿀을 넣은 꿀배차에 밤꿀이 들어간 호지크림을 얹은 음료 '산굼부리', 아까시꿀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크림을 채운 '허니파우치', 견과류와 피나무꿀, 도토리화분, 요거트 등을 쌓아 올린 '벌꿀 프라페' 3종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대회는 국산 양봉산물이 지닌 매력을 다양한 카페 음료와 후식으로 선보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양봉산물을 일상에서 더욱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알리고 소비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농진청>

전북 건설업계 '대형공사 분할 발주' 구체적 요구

김윤덕 의원 "현안 검토 국가계획 반영 노력"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건설업계가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로 분할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답변은 현안 검토와 지원 의사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2일 김윤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 방식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감 부족을 지목했다. 특히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로 분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규모 공사가 통합 발주될 경우 상대적으로 시공 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업계의 건의는 단순한 공사물량 확대 요구를 넘어 발주 구조를 개선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전북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건설업계 현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숙원사업이 국가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업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형공사 분할 발주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인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분할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할 일정,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투자와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지역업체의 수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 회장은 이날 김 의원의 장관 재직 당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규모 투자 유치와 주요 국가건설사업 추진 등에 감사를 표했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이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로 얼마나 연결될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는 관련 법령과 공사의 특성, 시공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분할 발주가 가능한 사업과 법적·행정적 검토 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등 도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역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발주 방식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의 검토·지원 의사가 실제 발주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최준호 기자

악성민원 책임, 학교장에 떠넘긴 교육청

법적 대응 권한 강화
"방어 수단 부여는 긍정
현실적 실효성은 의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발맞춰 일선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 전담 기구의 직접 개입 대신 일선 학교장에게 퇴거 요구와 형사 고발의 '총대'를 메우는 구조여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오는 29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민원 중지 요청,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관련 민원이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급증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정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17건 중 절반에 가까운 8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집계됐다.

교권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교 현장에 방어 수단을 부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시 대면해야 하는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명령하거나 형사 고발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어디까지가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이고 어디부터가 악성 민원인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판단과 사법 조치를 전가하는 것은 학부모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전담팀이 직접 넘겨받아 차단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는 "교육인권센터가 내놓은 자료에는 명확한 표준 매뉴얼 배부도 없이 '안내할 계획' 수준의 사후 지원 대책만 늘어놓았다"며 "국가 시행령 시행을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로 둔갑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자체 조치와 실적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성민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에녹 X 수찬 트롯 콘서트'

28일 가을날 추억 선사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8일 가을의 정취를 감미로운 목소리와 흥겨운 음악으로 채워 줄 '에녹 X 수찬 트롯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닌 가수 에녹과 김수찬이 한 무대에서 펼치는 특별한 콘서트다.

트롯 특유의 진한 감성과 흥겨운 리듬에 젊고 감각적인 에너지를 더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가창력과 풍부한 표현력을 겸비한 에녹, 밝고 유쾌한 매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김수찬의 만남은 이번 공연의 관전 포인트다.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두 가수가 만들어 낼 음악적 시너지는 관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에녹과 김수찬이 함께 선보일 젊고 새로운 트롯의 매력을 통해 가을의 낭만과 공연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전국체전서 전원 메달

맞춤형 지도 훈련 결실
탄탄한 저력 입증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기량을 떨쳤다.

이번 대회에서 정서연 선수(여자자유형 76kg급)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께 출전한 이지선 선수(여자자유형 68kg급)와 오정빈 선수(여자자유형 53kg급)도 각각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며 완주군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성과는 선수들의 땀방울과 체계적인 맞춤형 지도 훈련이 빚어낸 결실로,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탄탄한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환기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감독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경기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기량을 떨쳤다. <사진=완주군>

호원대 산학협력단, 특화자원 산업화 논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문화예술대학 소공연장에서 '전북 농생명 K뷰티를 만나 세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혁신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K-뷰티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특화자원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발제에서는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이 전북 농생명 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뷰티 산업 발전 가능성을 짚었으며, ㈜아로 이영 대표가 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호원대 유은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도의회 한준희 의원, 군산대 이인아 교수, 원광대 박정연 교수, 호원대 이숙경 교수, 지방지역 신강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산학협력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충길 산학협력단장은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이 K-뷰티 산업의 핵심 소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학과 지역산업 간 협력을 강화해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동반 성장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머큐리 프로젝트' 성료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맞손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지난 21일과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머큐리 프로젝트' 7·8기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현대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공동 기획한 머큐리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스포츠 공간에서 기상과학과 우주를 흥미롭게 배우도록 돕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전문 강사의 기상과학 교육과 'LED 달 무드등 만들기',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선수단 라커룸과 실내 훈련장, 경기장 피치를 둘러보는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프로축구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지난해 시작된 머큐리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클럽하우스(5·6기)에 이어 하반기 전주월드컵경기장(7·8기)으로 장소를 넓히며 총 8회에 걸쳐 운영됐다.

구단은 비경기일에도 경기장을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도현 단장은 "축구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경기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미래 세대에 가치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1층 독서공간 이름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2026 전북교육청 독서공간 이름짓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인 '독서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전북교육청 1층 독서공간의 정체성을 담은 친근한 명칭을 발굴하고, 학생과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책 읽는 전북교육'과 '독서 300 프로젝트'의 가치를 담은 공간 명칭과 제안 이유(100~300자)를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10편의 후보작을 선정한 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국민 공개 검증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전문가 심사 70%와 선호도 조사 30%를 합산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등 총 6편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12월 4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명칭은 1층 독서공간의 공식 이름으로 지정돼 독서 행사와 추천 도서 전시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1층 독서공간이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열린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독서 300 프로젝트와 발맞춰 누구나 책을 가까이하고 생각을 나누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道문화관광재단, 해외 선수 대상 관광체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무주에서 열린 '2026 골든 트레일 월드 시리즈(GTWS)' 대회에 참가한 해외 선수와 스포츠 및 미디어 관계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26일 오전 10시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북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행사 참가자들의 전북 방문을 지역 문화와 관광체험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대회 개최지인 무주에서 전주로 관광 동선을 넓히고, 대회 종료 후 참가자들의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해 전북의 관광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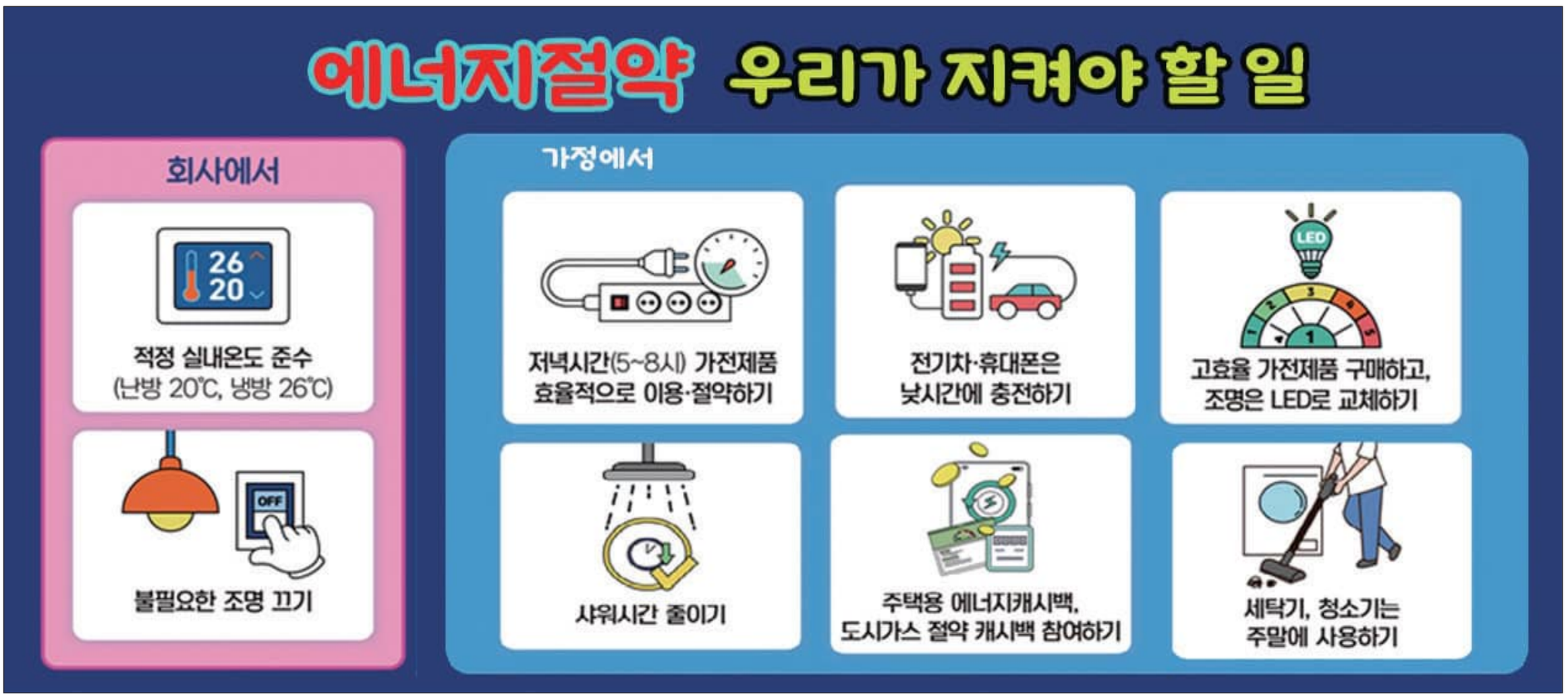
주요 일정은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거리와 경기전 일대 탐방, 재단의 로컬체험관광상품으로 선정된 모주 체험 프로그램 참여, 관광기념품 100선관 방문이다. 참가자들은 전북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정취를 접하고,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 콘텐츠와 관광기념품을 만나봤다.

참가자는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GTNS(Golden Trail National Series) 선수와 대회 및 브랜드 관계자, 해외 미디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살로몬과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최영규 사무처장은 "해외 선수와 스포츠 및 미디어 관계자들이 전북에서의 관광 경험을 후기와 콘텐츠로 공유하며 전북 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익산 마한박물관, 내달 21일 흙과 불로 빚는 토기 체험 연다

수천 년 전 선조들이 흙을 빚고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릇을 구워내던 선사시대의 지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백제도예원에서 시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흙과 불의 향연, 전통 토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나만의 토기를 직접 손으로 빚고, 선사시대 전통 방식 그대로 노천가마에서 구워보는 이색 역사문화 강좌다. 고대 토기 제작 기술과 옛 선조들의 생활 문화를 몸소 배우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점토를 굴리고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토기를 빚는다. 이어 야외에 마련된 전통 노천가마에 불을 지펴 토기를 단단하게 굽는 소성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의무교육인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간부공무원 별도 교육으로 마련됐다. 조직 내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중점을 뒀다.

강사로 나선 문지윤 해피앤힐링코칭연구소 대표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 대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행동에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과 폭력의 요소가 담겨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조직문화 사례를 바탕으로 부서장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사례별 의견을 나누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세대 간 성인지 감수성의 격차를 줄이고 관리자로서 인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청소년 안전망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6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청소년 관련 5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령도래 종결아동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세 연령도래(초등학교 졸업)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지원서비스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군산청소년수련관, 군산시가족센터, 군산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참석자들은 △드림스타트 사업 및 연령도래 종결아동 현황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연계 서비스 △종결아동 연계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위기청소년 발굴·의뢰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종결 예정 아동의 지원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적합한 청소년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훈 아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들이 청소년기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부관아터, 국가사적 지정 속도

현장 정밀 지표조사 마쳐… 정읍시, 내달 구역·보존 방안 구체화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자 민중 저항의 상징 공간인 고부관아터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현장 정밀 지표조사를 마쳤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고부관아터 추정지인 고부초등학교 일원 1만 7370㎡를 대상으로 현장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에 남은 초석과 기단석 등을 조사하고, 문헌과 조선시대 고지도를 현재 지형과 일대일로 정밀 대조했다.

조사팀은 학교 안팎에 노출된 초석과 기단석 등을 토대로 관아 건물로 추정되는 유구의 위치를 측량했다. 고부관아 해체 당시 목재 일부를 사용해 지은 주변 건물의 현황도 파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학교 시설 건립 과정 등에서 이뤄진 땅깎기(절토)와 흙쌓기(성토)로 지형이 훼손된 양상을 살폈다. 옛 관아 건물의 흔적을 기억하는 현지 어르신들의 구술도 기록해 향후 발굴조사와 사적 지정 구역 설정에 활용할 실증적 단서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확보한 현장자료와 유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제3차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표조사의 최종 성과를 보고하고 전문가 종합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사적 지정 신청 구역과 단계별 보존·정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반영해 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 1894년 반봉건과 평등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고부관아터의 실체와 역사적 진정성을 현장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3차 학술토론회를 통해 학술적·물적 근거를 갖추고, 고부관아터가 국가사적으로 조속히 지정돼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군산, 행정 경쟁력 입증 2(題)

익산시, SNS대상 최우수상

익산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과 소통 역량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익산시는 최신 인터넷 유행(밈)과 화제 요소를 발 빠르게 포착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화제성을 익산의 숨은 명소와 문화·관광 자원 홍보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실제 방문을 이끌어낸 점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유튜브 채널 '뜬뜬'의 인기 여행 예능 '풍향중'과 연계한 기획 홍보다.

시는 영상에 나온 명소와 맛집 소개에 머물지 않고, '풍향중이 놓친 익산의 맛', '풍향중 따라 익산 한 바퀴' 등 자체 기획물 14편을 제작했다. 이 콘텐츠들은 누적 조회수 61만 회, 공감 1만 2,000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익산 여행 열풍에 불을 지폈다.

익산시의 SNS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 창구'로 진화했다. 엄은용 익산시 홍보담당관은 "시민 눈높이에서 유쾌하게 소통하고 익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온 익산시 SNS 기자단의 노력과 민선 9기 SNS 중심의 소통 행정이 어우러져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익산의 가치를 전국에 생생히 전하는 감동 소통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 '좋은 정책상'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4일 충남 천안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은 평생학습도시 간 네트워크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국 207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정책을 발굴·선정하는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한 '오식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시 외곽 국가산업단지의 평생학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와 주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오식도 평생학습센터는 2024년 오식도 복합문화센터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106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998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6년부터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습 기회를 꾸준히 넓혀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2년 '동네문화카페', 2023년 '발달장애성인 마음쉼' 사업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거머쥐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좋은 정책상' 3회(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손수경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 소외지역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좋은 정책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배움과 나눔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생활과 연계된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역량 강화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와상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도와

위생용품 구입비 월 최대 5만원 지원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해 상시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위생용품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며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와상중증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생용품 구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기저귀와 받침(패드), 위생물수건(물티슈), 위생장갑, 깔개(매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용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64세 이하의 와상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배변·배뇨·화장실가기 항목이 4단계에 해당하거나, 일상생활 동작검사에서 배변·배뇨 항목 점수가 2점 이해야 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한다.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3산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간담회

현장 소통 박차

익산시는 26일 오후 4시 제3일반산업단지 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2공장에서 최정호 익산시장과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신속히 뽑아내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해결 기구 '프리패스, 기업 119 동행단'의 현장 중심 산단 릴레이 소통 세 번째 자리다.

시는 앞서 익산국가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이날 제3산단을 찾아 경영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회의실을 벗어나 생산 열기가 가득한 입주기업 공장 한가운데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민선 9기 익산시의 실용주의적 친기업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인력 채용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노후 산단 도로 및 환경정비 등 기업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기업 119 동행단'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적극 반영·해결하고, 향후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부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6 보부상장터' 개최

30일~11월 1일까지

군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구시청광장 일원에서 '2026 보부상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육성사업'에 선정된 '맛의거리 맛리단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시비 총 4억 6천만 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월지로 야시장'과 '항도 사일런트 클럽'의 열기를 이번 보부상장터로 이어가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싣는다.

장터는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객주상회 팝업전시, 금호학교 특화상품 팝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인 공연, 마술쇼, 국악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지역 상인 11개 팀과 금호학교 수료생 2개 팀이 참여하는 부스에서는 지역 상권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화상품 시연 등을 통해 군산만의 특색 있는 상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객주상회 팝업전시'에서는 군산 근대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모티브로 개발한 공동브랜드 '1899 객주상회'와 참여 점포, 특화상품 등을 소개해 군산 골목상권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을 즐기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전국체전 정상

단체전 4대0 완승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정읍 씨름의 저력을 보여줬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단풍미인씨름단은 결승에 올라 경북연합팀과 맞붙었다. 구미시청·의성군청·문경시청 씨름단으로 구성된 경북연합팀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며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경장급(75kg 이하) 황찬섭 선수와 역사급(105kg 이하) 김기환 선수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량을 입증했다.

박희연 감독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씨름 단체전에서 우승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며 "매 훈련에 성실하게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의 최우선 나침반으로 세운 익산시가 민선 9기 공약의 빈틈없는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26일 오후 3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실내공연장에서 '민선 9기 익산시 공약이행평가단 1차 회의'를 열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점검·평가한다.

시는 공정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최종 30명의 시민 평가단원을 위촉했다. 평가단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평가단의 역할과 기능 교육, 분과 구성, 분과별 심층 토의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세 차례 집중 회의를 거쳐 공약 실천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진다. 이어 평가단이 제시한 개선 의견과 권고사항을 전격 반영해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군산시는 26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선유도 일원에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자영업자인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업소 경쟁력 강화,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선진화된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실전 활용 △공무원 사칭 등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법 등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지원 정보와 친절 서비스 노하우를 얻고, 일상의 피로를 덜어내는 재충전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겨울철 한파 대비 철저히" 2(題)

고창군, 자연재난 대책회의

고창군은 23일 군청에서 심덕섭 군수 주재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설·한파에 대비한 부서별 준비상황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15개 협업부서와 3개 유관기관 그리고 고창군 자율방재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여름 집중호우를 통해 확인한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만큼, 각 부서와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논의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후주택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시장 지붕 등 적설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독거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겨울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다가오는 겨울도 안심할 수는 없다"며 "올여름 많은 비를 겪으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만큼, 각 부서와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논의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군은 회의에서 확인한 보완사항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 전인 11월 14일까지 정비하고, 대책기간 중에도 현장 예찰과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며 군민 안전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행복드림 서비스 선제대응

부안군은 올해에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파에 대비해 사회복지과 행복드림TF팀의 행복드림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드림TF팀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생활복지사들과 연계해 생활환경 개선과 집 소규모 수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특히 한파를 대비해 난방과 전열 기구를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운 날씨로 인한 동파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누수되는 수도꼭지와 낡은 창호 등을 점검 및 수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와 전열 기구를 점검하면서 직접 수리가 가능한 소규모 수리는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또 노후화된 주택을 점검하면서 확인되는 보일러 이상과 전선 노후화는 같은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고 수도, 배관에서 물이 누수 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조치를 함으로써 후에 한파로 인한 피해 확산을 미리 예방하고 있다.

행복드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해 드리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9월까지 벌써 1800여 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했고 올해 말까지 2000여건 이상의 생활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님은 "2027년부터 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현재 대상을 어르신과 취약계층에서 전 군민으로 확대해 보편적 생활 복지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막

이달 30~31일

김제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제실내체육관일원에서 국내 유일 '제4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피지컬 AI가 바꿀 특장산업의 내일'을 캐치프레이즈로, 특장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김제시>

주요 프로그램으로 30일 오전 10시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특장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과 설계 경진대회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특장차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장차와 피지컬 AI 융합기술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에 협력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피지컬 AI 시대 제조업 전략수립'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특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또 31일에는 미래 특장차 기술과 국민 안전기술을 접목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선보이는 '특장차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수출상담회와 특장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마련해 기업의 판로 확대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전시장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고소작업차, 환경청소차, 캠핑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차량 50여 대를 전시하고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에서는 유관기관 제품과 기술, 기업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특장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우수 농특산품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설명회

고창군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 고창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3일 자매결연 도시 중국 산동성 조장시에서 바이어 초청 고창 농특산품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특산품을 바이어에게 선보이며 중국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 이튿날(24일)에는 중국 내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고창 농특산품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복분자즙, 복분자 젤리·캔디 등 고창의 우수 복분자 특산물을 중국에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고창 농특산품은 현지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물품을 구매한 주민들은 고창 농특산품의 깊은 풍미와 우수한 품질에 만족했으며 일부 인기 품목은 조기 매진을 보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출장단을 이끈 오미숙 고창군 관광복지국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선보이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고창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생지원금 신청 30일 마감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미사용액 자동 소멸


권익현 군수

부안군은 부안형 기본사회 준비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30일인 만큼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청률은 97.5%로 총 137억 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1100여명으로 집계됐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을별 찾아가는 집중 지급을 실시했으며 이후 9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지급을 진행해 왔다.

신청은 오는 30일 마감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군은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30일인 만큼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원금 사용기한도 오는 11월 30일까지인 만큼 기한 내 사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군으로 환수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사 지진대비 대피 훈련

초기 대응 능력 강화

고창군이 지난 22일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와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청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창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치근 고창군 안전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안전한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 멋진 승부와 화합 속 '성료'

김제시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정소영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김제시배드민턴협회(회장 이병순)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후원한 대회로, 전국에서 646개팀 1,30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여복식, 혼성복식으로 나눠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기간 내내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멋진 승부와 화합을 보여주며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개막식 전에는 정소영 선수의 자녀들(김혜정, 김소정)과 성심여고 선수들이 멋진 시범경기를 펼치며 대회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선수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 김제에서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대회를 개최하게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회가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역보건의료 정책 방향 논의

마을 건강돌봄 체계 등 4대 전략·12개 과제 마련

김제시는 26일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실무단, 용역 수행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주민 수요를 분석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9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김제시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를 담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의 인구·건강수준과 보건의료자원, 주민 건강 요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제9기 계획의 4대 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4대 전략은 △시민 안심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김제형 지역·필수·공공의료 안전망 확립 △생활터 중심 선제적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합병증·감염병 포괄 관리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건강격차 해소 △디지털 기술로 잇고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원격협진과 응급의료 연계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방문의료, 마을 건강돌봄 체계 구축,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등 12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중장기 계획인 만큼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부안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3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69종의 소득·재산정보를 토대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이 달라지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확인된 내용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수급자격을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보장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결실

김제시가 지역 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는 '체류형 농촌치유관광 코스' 시범운영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올해 초부터 김제농촌활력센터와 협업해 총사업비 2,000만원(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투입해 '2026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치유·체험·관광·교육 농장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농촌체험 콘텐츠 매뉴얼 개발과 공동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통해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의 결실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김제시 일원에서 관외 관광객(4인 가족 1개 팀)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촌체험 치유관광 코스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늘봄수국농장 △나인캐슬 △꽃다비팜 등 관내 주요 치유·체험 농장과 농촌 민박을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금산사와 금평저수지 등 금산면 일대의 대표 명소 탐방을 결합해 김제시만의 풍부한 치유 관광 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이동 동선 및 일정 적절성 점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코스 개선점 발굴 △관광지와 치유농장 결합에 따른 수익성 및 사업성 검증을 정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족어울림 한마당 개최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4일 참여 청소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뛰고 굽고 웃고 가족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바베큐 체험과 체육대회를 함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일상에서 나누기 어려웠던 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가족 간 친밀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함께 먹고 뛰고 웃으며 가족들에게 특별하고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통합돌봄 연계 강화

퇴원환자 돌봄 공백 방지

고창군은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종료 후에도 필요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군은 최근 통합돌봄팀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첫 사후관리 및 통합돌봄 연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 상태와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군은 연계회의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대상자별 사후관리 현황과 서비스 지원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복합적인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기관과 함께 대상자 중심의 촘촘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역 정책 실효성 높인다 2(題)

완주군, 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원팀 소통'

완주군과 전북연구원이 26일 군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군정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최백렬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해 완주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산업·농업농촌·사회문화·인구전략·지역안전 등 주요 분야별 핵심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경제산업) △ 완주형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농업농촌) △만경강 관광자원화(사회문화) △'인구 10만 시대' 지속성 확보 및 읍·면 간 인구 양극화 해소(인구전략) △기후위기 대응 안전관리(지역안전) 등 완주군이 추진 중인 핵심 과제들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 소통하며 완주군의 대도약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백렬 전북연구원장은 "완주군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연구원에서도 완주군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복지사업 57개 성과·개선점 점검

남원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별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57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행복살림단' 5개팀 75명이 참여해 분야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돌봄체계 분야 '손 보탬' 8개 사업 △마을공동체 분야 '마음나눔' 10개 사업 △고용환경 분야 '일 채움' 10개 사업 △교육문화 분야'배움 더함' 10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9개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어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에서는 사업담당자와 복지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의견과 개선 과제를 2026년 사업 마무리와 시행결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2027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에도 적극 활용해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강천산배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명 열전

순창군은 지난 24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회 강천산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순창군 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우장식)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11개 시·군과 전남·광주 지역 6개 시·군·구, 경남 거창군 등 총 18개 시·군·구에서 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이날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대회사, 환영사, 선수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을 넘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대회가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순창을 알리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교류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삼례 하루 종일 '북적' 낮밤 연계 축제로 체류 늘렸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지난 24일 개최한 야간 미식축제 '완슐랭 맛보삼례'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앵커사업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 6,000여 명이 방문했다.

우석대학교 앵커사업단의 '시·군명소화 대학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완주의 대표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선보였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식 교육 체험과 함께, 지역 주민 및 관광 조직이 참여하는 체험·판매 부스를 마련해 완주만의 로컬 먹거리와 콘텐츠를 다채롭게 알렸다.

이번 행사는 같은 날 오전에 삼례책마을 일원에서 열린 완주문화관광재단의 '2026 스테이삼례 브런치 페스타'와 연계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낮 시간에 '브런치 페스타'와 삼례문화예술촌의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展)' 등 고품격 전시를 즐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 '완슐랭 맛보삼례' 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삼례문화예술촌 일대 전체가 하루 종일 활기를 띠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의 신선한 식재료와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며 "낮부터 밤까지 풍성하게 이어진 이번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삼례를 중심 기반으로 한 미식 관광 문화 확산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전북 보육인 2천명 완주서 '한마음'…화합·재충전

전북 지역 보육교직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전북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24일 완주군 우석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우원경)가 주관하고 완주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희봉)가 힘을 보탠 이번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도내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대회사, 보육인 결의문 낭독,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순으로 이어졌다. 공식 행사 뒤에는 보육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 공연과 '축제 한마당 힐링 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종료 후 일부 참가자들은 완주군 일원의 음식점과 관광명소를 방문해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행사가 보육교직원 여러분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금융 자립 역량강화 교육 진행

남원시는 26일 남원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원시에서는 1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가입 유형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

이번 제3기 교육은 국민연금공단 장현석 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상속·증여 관련 기본지식과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자산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지식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미인' 남원 화장품 판로 확대 역할 톡톡

지역 기업 5개사 제품 상설 판매 행사 참여·콘텐츠 등 다각적 홍보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운영하는 남원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 '춘향미인'이 지역 화장품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춘향미인'은 남원 지역 화장품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고죽점에 조성된 상설 판매장으로, 지난 8월 24일 공식 개장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현재 코빅스, 원스킨화장품, 한미화장품, 제이그라운드, 하이솔 등 남원 지역 화장품기업 5개사가 참여해 스킨케어와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단순 판매를 넘어 입점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주요 지역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개장식을 시작으로 남원농협 주관 여성대학 행사(8월 28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9월 7일),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교육(10월 1일), 결혼이민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10월 26일) 등에 참여해 제품을 알렸다.

또한, 명절 수요를 겨냥해 특별 이벤트와 무료배송을 진행했으며, 제34회 흥부제 기간에는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임시 판매장을 운영했다.

방송과 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활발히 이어졌으며 춘향 앰버서더 연계 영상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은 판매장을 운영하며 계절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기획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집된 소비자 반응과 선호도를 입점 기업과 공유해 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떡볶이 페스타, 세계 트레일러너 입맛 공략

무주 GTWS서 미식 콘텐츠 선봬 11월 21~22일 떡볶이 페스타 홍보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를 선보이며 다가오는 '2026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의 서막을 알렸다.

재단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주 덕유산리조트 일원에서 열린 '2026 골든 트레일 월드시리즈(GTWS) 무주 트레일'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와 대회 관계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순창 고추장 떡볶이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K-FOOD인 떡볶이에 순창의 특산품인 고추장을 접목해 순창만의 차별화된 맛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갓 조리한 떡볶이를 맛보며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의 색다른 맛을 즐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앞두고 국제 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순창 고추장 떡볶이를 세계인에게 미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재단은 이번 GTWS 무주 트레일 참가를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 고추장과 떡볶이를 결합한 미식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순창의 맛과 전통 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2026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순창군>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윤숙 대표는 "앞으로도 순창 고추장과 떡볶이의 친숙한 매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순창의 맛과 전통 장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지방세 정보 리플렛 1천부 배포

순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지방세 관련 제도와 감면 혜택, 신고·납부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군민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 및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등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기한 등 군민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담아 세금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고,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과 지방세 담당 부서별 연락처를 수록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작한 리플렛 1,000부는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민원인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받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과 신고·납부 정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역량 키운다

완주군이 공직사회의 규제혁신 역량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나선다.

26일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 군은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강사로 나선 이기영 좋은규제시민포럼 지방규제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정책과 현장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공유하며, 일선 공직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찾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은 "규제혁신은 제도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한우·양파 축제…구·신시장 상생 잇는다

31일 고산미소시장 일원서 개최 한우 18~23%·양파 15% 할인 판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정봉락)가 오는 31일부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인 11월 1일까지 이틀간 고산미소시장 일원에서 '2026년 완주 한우양파 쿵짝 숯불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한우자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완주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완주 대표 8품 특산물인 한우와 양파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고산면 신시장과 구시장 간의 지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을 하나로 잇는 '상생과 화합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행사를 추진한 가운데, 완주한우협동조합, 고산농협, 고산면, 고산면주민자치위원회, 고산전통시장통합상인회, 고산미소시장상인회 등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가 힘을 보탰다.

행사 기간 고산미소한우 앞마당에는 방문객들이 고품질 완주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구이존'이 설치·운영된다. 또한 고산전통시장통합상인회와 부녀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먹거리부스와 고산미소시장상인회의 플리마켓이 열린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대적인 할인·증정 이벤트도 펼쳐진다. 고산농협은 한우를 18~23%, 양파를 15% 할인 판매하며, 완주한우협동조합 고산미소한우에서는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양파 1.5kg을 무료 증정한다. 여기에 육질이 부드러운 한우 찹스테이크와 한우 불고기 버거 시식회, 한우·양파 증정 현장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차려진다. 주말 밤을 달굴 '야(夜)시장'도 열려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봉락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구시장과 신시장이 상생 발전하고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전북도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서

남원시가 남원의 매력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청 직원과 방문 민원인에게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원을 대표하는 답례품인 추어탕, 김부각, 파프리카 등을 전시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들이 남원의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답례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김부각 선물세트, 화장품세트 등 추가 증정이벤트도 진행해 기부 참여의 즐거움을 더했다.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남원의 우수한 답례품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남원에 관심을 갖고 기부로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2026 달빛누리 페스티벌 with 할로윈' 개최

장수군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장수 누리파크 일원에서 가을의 정취와 할로윈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결합한 '2026 달빛누리 페스티벌 with 할로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누리파크와 캠핑장을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캠핑객, 군민이 함께 어울리며 특별한 가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표 프로그램은 할로윈 콘셉트의 개성 넘치는 의상과 분장을 선보이는 '할로윈 코스튬 페스타'와 행사장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미스터리 보물찾기'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의상과 분장으로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보물을 찾아 행사장을 둘러보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할로윈 테마에 체험형 콘텐츠를 더해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가을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폭력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의회는 26일 무주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청렴리더십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과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성 의식 함양으로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진행됐다.

반부패 청렴교육은 이지문 (사)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이리나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

무주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상에서 실수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학습하고 청렴가치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와 인권 존중 의식을 다졌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도르메 호랑이 잡던 날' UCC 공모전 대상

임실군은 지난 17일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세부사업인 '우리마을담다'를 통해 제작한 동화 영화 '도르메 호랑이 잡던 날'이 2026년 임실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원산마을 주민들과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가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발굴해 동화와 영상으로 재탄생시킨 결과물이다.

주민들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마을 고유의 이야기와 문화적 가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마을담다'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라질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문화를 기록하는 사업이다.

사진·그림·이야기 등을 책자와 콘텐츠로 제작해 향후 마을 아카이브와 문화축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마을 이야기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2027년 군정계획 구체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핵심사업 성과창출 최우선



임실군은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임실군이 2027년 군정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득수 군수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접 주재하며 군정 전반을 점검한 자리로, 취임 후 약3개월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2027년 군정의 우선순위와 사업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목표로 4대 군정방향을 부서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신규사업 발굴을 병행해 군정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민선9기 핵심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구축에 힘을 쏟는다.

그동안의 신청·지급 성과를 바탕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농협과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소비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가공·유통의 연계 강화, 현장 맞춤형 신규 소득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경제의 토대를 다진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사선대, 성수산등 대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관광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 관광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축제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전반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보건의료와 돌봄,교육·문화·체육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체계를 내실화하고 아동·청소년·청년등 세대별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KTX 임실역 정차,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 등 임실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현안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국·도비 확보 대응을 강화하고, 사업별 단계에 맞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복합문화플랫폼 진안GO1 기공식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복합플랫폼 2개 사업 첫 삽



진안군은 26일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 학천지구에서 '복합문화플랫폼 진안GO1(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진안)'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은 복합문화플랫폼 진안GO1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복합플랫폼, 온가족 다올마루) 가운데,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과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2개 사업이 먼저 첫 삽을 뜨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총사업비 352억 원이 투입된다.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복합문화플랫폼 진안GO1'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첫 삽을 뜨는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은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2,990㎡ 규모로 신축되며 총사업비 181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10월 개관이 목표다.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 180면과 복합문화광장 5,04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 점검 부서 간 협력 강화

장수군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대비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요 피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도로 분야는 제설 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확보해 강설에 대비하고 농업·축산 분야는 대설과 한파에 취약한 농업시설과 농작물을 점검해 피해 예방에 힘쓴다.

또한 한파쉼터와 한파저감시설의 운영 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군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우려 지역과 중점관리지역을 반복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전달된 지시·협조사항을 관계 부서와 읍·면에 공유하고 사전 대비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부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

부귀 온가족 행복거점센터 조성

진안군은 26일 부귀 온가족 행복거점센터에서 부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지역 주요 인사를 비롯한 부귀면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부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억 원(국비 21억 원, 지방비 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귀 온가족 행복거점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물인 부귀 온가족 행복거점센터는 연면적 499㎡ 규모로 조성됐으며, 다목적실, 커뮤니티 휴게실, 가족학습실, 공유주방, 소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배우며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운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축제 기간 지역상품권 추가 적립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품권 5% 추가 적립 1인당 최대 2만 5천원 적립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역 내 모바일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12%를 선할인 받고 결제 시 추가로 5%가 적립돼 최대 17%까지 할인(12%, 선할인, 5% 후적립)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 적립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5천 원, 혜택이 적용되는 누적 결제액은 50만 원이다.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상품권 혜택과도 중복 적용이 돼 '착한가격업소(36곳)'에서는 5%에 더해 5%가 추가로 적립된다. 결제액을 기준으로 최대 22%까지 할인 (12% 선할인, 10% 후적립) 받을 수 있다.

또 기본소득 등 정책 수당이나 기존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특별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특별 프로모션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 수요조사

11월 20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진안군은 농업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내달 20일까지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진안군민과 농업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농업인 교육과정 편성 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내용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 분야와 과정,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응답하거나,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도청사서 고향사랑·SNS연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마케팅 추진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뉴미디어 홍보를 연계한 통합홍보 전략으로 기부참여를 확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사 1층 로비에서 도청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임실군 공식 SNS 등을 알리는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 홍보담당관 전 직원이 참여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임실의 농축산물과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했다.

행사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임실군이 지역구인 박정규 도의회 부의장이 동참해 임실군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고, 독려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잠재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실군의 우수한 농축산물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기부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임실군 공식 SNS 구독 이벤트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이날 도청 직원과 방문객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임실군청 SNS 구독 및 조회수 증가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사과, 스마트 방제 시연·신품종 시식회

자율주행 무인 SS기 시연 6개 품종 맛 평가

장수군은 사과 재배농가와 과수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활용 과수 생력화체계 구축 시범사업 연시회 및 신품종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방제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의 특성을 공유해 과수 재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과수원 주행경로를 학습해 자동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자율주행 무인 SS기 시연이 진행됐다.

자율주행 무인 SS기는 기존 대비 약제 살포 시간을 약 80% 줄일 수 있으며, 원격 방제와 무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농약 노출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어 열린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 시식평가회는 △골든볼 △아리원 △이지플 △감로 △컬러플 △만홍 등 6개 품종을 대상으로 맛과 식감, 상품성 등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품종별 특성을 직접 확인하고 재배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평가 결과를 향후 신품종 보급과 품종갱신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공원·상권 일대 환경정화 소상공인 판촉 지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지난 23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원 및 상권 일대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소상공인 판촉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임직원들은 지역 내 공원과 주요 상권 일대를 직접 찾아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 환경을 정비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에 이어 지역 내 주요 업소를 방문해 소상공인 판촉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은 지역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제품 판촉과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판촉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지난 23일 공원 및 상권 일대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소상공인 판촉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부인회 전북도지부·르누베르 익산 어르신께 화장품 선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지역 노인을 위해 따뜻한 온정이 이어졌다.

㈔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신혜경)와 ㈜르누베르(대표 권민석)는 26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300만 원 상당의 스킨·로션 기초화장품 30세트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품은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특화사업인 '어르신 봄날 사진관'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신혜경 지부장과 권민석 대표는 지난해에도 동산동 주민을 위해 화장품 50세트를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30세트를 쾌척하며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신혜경 지부장은 "어르신들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아끼고, 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권민석 대표는 "기초화장품은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선뜻 사기 힘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일상에 잔잔한 행복과 웃음이 번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청년 귀농인 지철민씨, 귀농 정착사례 '최우수상'

부안 1호 애플망고 농장 운영 새로운 농업 경영 모델 실현

부안군은 지난 23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참예우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정착사례발표 행사에서 부안 대표로 참가한 청년 귀농인 지철민씨(망고로움 농장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전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연합신문사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귀농귀촌연합회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내 13개 시·군이 참가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착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지철민 대표는 '달콤한 도전, 망고농부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10년간의 직장생활과 수도권 생활을 뒤로하고 부안에서 애플망고 재배에 도전하게 된 계기부터 귀농 준비과정, 농업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임실 덕치면, 이동복지사업 '행복 만리길' 성황리

임실군 덕치면은 지난 22일 덕치면복지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는 농촌지역 이동복지사업 '행복 만리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건강·여가·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등 80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남원의료원의 영양수액 제공 △임실보건의료원의 문진 △임실군자원봉사센터의 수지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건식족욕 온열치유 및 편백주머니 만들기 등 건강관리부터 여가활동, 복지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이엔에이치테크 김경회 대표, 무주군에 성금 기탁

첫 기부로 지역 발전 응원

㈜이엔에이치테크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무풍면이 고향인 김경회 대표가 무주군에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경회 대표는 "무주군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무주를 위해 크게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천마, 사과, 쌀 등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답례품이 제공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용인 전북도민회,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용인특례시 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고석곤)가 지난 24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용인특례시 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전북 출신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출향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그동안 군산, 김제, 전주, 정읍, 부안 등 전북 지역 여러 시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지역 발전을 응원해 왔다.

이번 고창군 방문은 도민회의 여섯 번째 고향사랑기부로, 고창 출신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이뤄졌다.

고석곤 회장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지만 전북에 대한 애정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다"며 "전북의 여러 시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가 고창군 발전에도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무주·금산 3군3면 제30회 만남의 날 행사

진안군 용담면(면장 노기환), 금산군 남일면(면장 박성진), 무주군 부남면(면장 강명관)이 함께하는 '제30회 3군 3면 만남의 날'행사가 지난 23일 용담면 체련공원 실내다목적구장에서 3개 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1992년부터 시작된 지역 간 교류 행사로, 진안군 용담면과 동쪽으로 인접한 무주군 부남면, 북쪽으로 맞닿은 금산군 남일면이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추진하고 있다. 세 지역은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노기환 용담면장은 "용담면·부남면·남일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이자, 오랜 교류를 통해 인연을 이어온 지역 공동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백산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환풍기 교체 봉사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고은용)가 지난 23일 관내 취약계층 8가구를 대상으로 환풍기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후되거나 오염된 환풍기를 교체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환풍기를 교체하고 샤워기 등 생활 시설을 정비하는 등 평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정숙영 백산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一事一言〉



한미양행의 남원 투자 MOU 넘어 '실질 고용·농가 상생' 열매 맺길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의 가뭄을 겪어온 전북 동부권 남원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한미양행이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내 2만 1,732㎡ 부지에 총 191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60여 명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 창출까지 약속한 한미양행의 과감한 투자 결단과 이를 이끌어낸 지자체의 노고에 먼저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이번 투자 유치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공장 신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북 내에서도 서해안권이나 전주·익산 등 도시권에 비해 산업 인프라가 미흡했던 동부권에 유망 중견기업이 터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육성 중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남원의 우수한 한방·약용 자원과 도내 농가들의 원료 재배 인프라가 건기식 전문 제조 기업의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전북 동부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 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투자 유치가 선언적 경사나 일회성 뉴스거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온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 잔혹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화려한 카메라 조명 아래서 수백억, 수천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토지 매매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투자가 유야무야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민과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류 위의 서명이나 협약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가동 소리와 청년들의 활기찬 출근길이다.

한미양행의 남원 투자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첫째, MOU를 넘어 신속한 토지 매매와 조기 착공으로 이어지는 '집행력'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협약서 서명에 안주하지 말고, 한미양행이 산단 내 입주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차질 없이 밟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한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정밀하게 작동시켜 계획된 191억 원의 투자가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공장이 제때 완성되도록 사후 밀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약속된 6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남원과 도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지역 우선 채용'이다.

기업 유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있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순 임시직이나 외부 인력의 스쳐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남원과 전북의 인재들이 양질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직통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행정과 기업의 공통 과제다.

셋째, 남원 및 도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원료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농가 상생 생태계' 구축이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생명은 우수한 천연 원료 확보에 있다. 한미양행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남원의 지리산 자생 약용 작물과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계약 재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신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지역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고부가가치 농업에 전념하는 '기업-농가 상생 모델'이야말로 농생명 수도 전북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다.

한미양행의 남원 산단 투자는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 동부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위대한 첫걸음이다. 80%의 열렬한 환영과 박수를 전함과 동시에, 이 소중한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20%의 치밀한 현장 검증과 촉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행정과 기업, 그리고 지역 농가가 합심하여 이번 투자를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 바이오 성공 신화로 완성해 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 설

통폐합 검토는 명분이었나, 전북도 산하기관은 되레 늘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산하기관 통폐합을 검토했던 전북도가 불과 3년 만에 신규 기관 설립과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 정작 조직은 늘리는 모순된 행정이다. 당시 통폐합 검토가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것이었는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명분 쌓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태창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16개인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신규 설립과 분리 추진에 따라 2027년 1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대비 직원은 403명 증가했고 출연금도 약 3배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는 동안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문제의 본질은 기관 수의 증가보다 통폐합 검토 이후의 행정 책임에 있다. 2023년 검토에서 어떤 기관의 기능 중복이 확인됐고, 어떤 통합 방안이 제시됐는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다면 왜 실행하지 않았는가. 반대로 통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논의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은 행정의 면죄부가 아니다. 예산을 들여 문제를 진단하고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기능 조정이나 업무 이관만으로 통폐합을 대신했다면 실제 인력과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증명해야 한다. 간판만 유지한 채 업무 일부를 옮기는 것으로는 구조개혁이라 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새로운 기관 설립이 기존 조직의 비효율을 고착화할 가능성이다. 기존 기관의 유사 업무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별도 법인과 관리조직을 추가한다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 신설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부터 제시해야 마땅하다.

전북도는 2023년 통폐합 검토 결과와 이행 실적, 미이행 사유를 공개하고 신규 기관 설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문제 제기에 그치지 말고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통폐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개혁의 실적이 될 수는 없다. 검토만 반복하고 조직은 계속 늘어난다면 그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지연이다. 전북도는 이제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 효율화 성과로 답해야 한다.

▲ 오늘의 시

그곳이 멀지 않다 / 나희덕

사람 밖에서 살던 사람도
숨을 거둘 때는
비로소 사람 속으로 돌아온다

새도 죽을 때는
새 속으로 가서
뼈를 눕히리라

새들의 지저귐을 따라
아무리 마음을 뻗어보아도
마지막 날개를
접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어느 겨울 아침
상처도 없이 숲길에 떨어진
새 한 마리
넓은 후박나무 잎으로
나는 그 작은 성지를 덮어 주었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등이 있고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독자투고 |

금융사기 예방, 작은 실천이 소중한 재산을 지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가족과 지인을 가장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읍시 관내 9월 말 기준 관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총 75건, 피해액은 2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의 단속과 수사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읍경찰서에서는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추진해 지역사회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T/F 회의를 통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읍 CGV 영화관의 영화 상영 전 광고 시간을 활용해 김응수 배우가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각종 행사와 기능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카드뉴스와 홍보물 제작·배포,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 학생 대상 맞춤형 피싱범죄 예방 교육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방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리나 대출 한도를 조정해 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 연루를 주장하거나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는 행동 역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공식적으로 확인한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추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112 또는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로 신고하고,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

정읍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고명희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천호성호 교육혁신 본격화

소통 문턱 낮추고 열린 행정







스피드게이트 철거·회의 생중계 개방 행정…‘독서 300’ 등 공교육 체질 개선 드라이브
공립학교 참관 계기 ‘국제형 농촌유학’ 추진… 천 교육감 “작은 학교, 세계 교실로”
체류형 주거 인프라 확보·일선 교원 행정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안착 과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핵심 기치로 내건 민선 5기 천호성호 전북교육이 행정 문턱 낮추기부터 기초학력 신장, 글로벌 교육 교류로 이어지는 교육자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위주의적 관행을 허물고 닫혀 있던 교육행정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학령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파고에 맞서 도내 작은 농촌학교를 세계적인 배움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선언적 구호를 넘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정책적 행보와 남겨진 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물리적 장벽 허문 ‘개방 행정’… 회의 생중계로 밀실 논란 차단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행정 체질 개선은 소통 방식의 전환에서 출발했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본관 출입구에 설치돼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지적받았던 스피드게이트를 전격 철거했다.

청사 진입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는 동시에 1층 로비와 도서관 등 공용공간을 도민과 교육가족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개방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전북교육청 주간 정책회의를 비롯해 직속기관장 및 시·군 교육지원청 기관장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해 밀실 행정 논란을 차단하고, 주요 정책의 공공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기초학력 책임제와 안전망 재정비… ‘독서 300’으로 미래 역량 함양

학생 중심 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전북형 독서 브랜드인 ‘독서 300 프로젝트’를 전면에 배치했다.

기존 암기 위주 평가 방식을 탈피해 학생 개별 성장을 관찰하고 지원하는 ‘성장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생의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서로’ 시스템을 가동해 기초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진로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교육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해 교실 내 갈등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 지역소멸 정면돌파… ‘교육장 지역추천제’와 ‘글로벌 전북유학’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존립 위기 앞에서는 현장 밀착형 교육자치와 외연 확장 정책을 결합했다.

본청 주도의 일방적 관료 임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장 인사를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추천을 거쳐 발탁하는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도입해 풀뿌리 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졌다.

외연 확장 정책으로는 기존 농촌유학을 발전시켜 특성화고 국제반과 해외 청소년 유치까지 연계하는 ‘글로벌 전북유학’을 본격화했다.

도내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특색 교육과정을 경쟁력 삼아 도시와 해외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파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14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나서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망도 넓혀가고 있다.

△ ‘구호’ 넘어선 실효성 검증… 정주 여건과 교원 업무 경감 관건

다만 이러한 혁신 구상들이 선언적 구호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피로도를 줄이고 실행 기반을 정밀하게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전북유학의 경우 단순 협약(MOU)이나 단기 관광성 방문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해외 청소년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주거시설 확보와 지자체 차원의 재원 분담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방문과 협약은 출발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정교한 실행”이라며 “지자체 및 현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거주시설과 생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 생태계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장 지역추천제의 공정성 담보와 함께, 기초학력 및 독서 300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교원들의 행정 업무 가중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뒤따라야만 공교육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성민 기자

인터뷰 *천호성 교육감*

“전북의 작은 학교, 세계 청소년 배우는 글로벌 교실로”

천호성 교육감은 최근 미국 시애틀과 시카고를 방문해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의 올림픽뷰 K-8 공립학교를 참관하고, 오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해외 청소년 대상 단기 캠프인 가칭 ‘A.C.T in Jeonbuk(전북에서 만나는 11일)’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 학교는 정규 수업의 약 90%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공립 이중언어 학교다.

천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해외 공교육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는 전북교육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전북의 특색 있는 농촌학교들이 해외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배움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A.C.T in Jeonbuk’에 대해 “미국 학생들이 도내 작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란히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전북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 첨단 산업 현장을 체험하는 실질적 교육 교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작은 학교를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와 함께 숨 쉬고 배우는 글로벌 교실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